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영화 카메라의 역사는 자동 무기의 역사와 일치한다. 이미지의 운반은 단지 총알의 운반을 반복할 뿐이다.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대상, 예를 들어 움직이는 사람을 조준함과 동시에 고정시키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발사하는 것과 촬영하는 것. 영화의 원칙 안에 19세기가 고안해낸 기계화된 죽음이 거주한다. 더 이상 적들의 죽음이 아니라, 일련의 비(非)인간들의 죽음. 콜트의 리볼버는 인디언 무리들을 조준했고, 개틀링이나 맥심의 기관총은(적어도 최초의 계획에서는) 원주민들을 겨냥했던 것이다.”(본문 중에서)



축음기, 영화, 타자기

프리드리히 키틀러 지음, 유현주·김남시 옮김

‘매체 이론의 푸코’라 불리는 이가 있다. 그는 매체에 대한 독창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무서운 말이다. 매체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데리다’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키틀러가 매체들의 기술적 변화를 조명했다. 키틀러는 1982년 한 시대의 문학과 문화를 뒤엎어 매체사로 재구성한 ‘기록시스템 1800~1900’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매체학자인 그가 이번엔 ‘축음기, 영화, 타자기’는 1900년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기술 매체들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를 기술한다.

축음기, 영화, 타자기로 대표되는 기술 매체들은 발명품이라는 카테고리에만 제한할 수 없다. 이들 매체의 발명은 문자 독점의 종말과 새로운 기록 체계의 등장을 상징한다. 이전까지의 총체적 인간이라는 관념이 해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껏 저자는 다른 매체이론가들과 달리

‘문자’를 최초 매체로 상징한다. ‘정보의 저장과 전달, 재현의 방식’이 매체라면 문자는 그에 해당한다. 물론 저장이 불가능한 언어와 음성은 제외된다. 문자 독점 체계가 가장 꽃을 피운 시기는 1800년대 전후의 낭만주의 문학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20세기 초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등장으로 이내 무너진다.

축음기, 영화, 타자기의 등장으로 저장이 불가능했던 음향, 광학, 텍스트 정보를 분리해 저장할 수 있었다. 각각 이미지 정보, 청각 정보, 문자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이른바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축음기 발명자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에 ‘안녕 Hello’라는 최초 기록을 남겼다. 그의 표현대로 ‘말이 영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영원하게 된 것은 말뿐이 아니라 말 이외의 소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소음들, 무의미한 소리들을 저장



축음기



영사기



타자기

1900년대 새로운 기술매체들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 조명

매체의 발명은 문자 독점 종말과 새 기록 체계 알려

음향·광학·텍스트 정보 분리 저장 ‘데이터프로세싱’ 등장

하고 재현하게 됐다.

저자는 그동안 인간의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소리만이 문자나 악보 등을 통해 기표로 남겨졌다면 축음기 등장은 청각 데이터라는 무의식의 기록을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축음기 이어 등장한 영화는 마치 실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듯한 효과를 발휘한다. 영화는 1초에 24번 스틸컷을 제시하면서 여러 착시 효과를 통해 실재처럼 보이게 ‘조작’을 한다. 실제적인 것을 상상

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기제가 된 것이다. 과거의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읽으며 상상하던 내면의 영상이 기술적 트릭을 통해 스크린에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타자기의 출현은 기록 방식에 대한 전환을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글 쓰는 이의 성별이 무뎠다. 여성 타자수의 등장은 대부분 남성 작가로만 이루어져 있던 문자 세계의 전복을 의미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규격화된 기록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개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외

면화했던 필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이다. 분절된 알파벳을 불연속적으로 기입하는 타자기는 개인을 익명화된 존재로 해체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답은 부차적으로 밀려난다.

무엇보다 저자는 아날로그 기술 매체의 큰 특징으로 정보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한다. 매체의 호환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디지털 매체에 이르러 완성된다. 컴퓨터에서는 모든 것이 호환이 가능하며 매체 구분의 최소한의 융합선마저 해체한다. 굳건했던 ‘총체적 인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지점이다. ‘매체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말은 한번쯤 진지하게 되새겨볼지 하다.

〈문학과지성사·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

문영숙·김월배 지음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귀국까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책이 나왔다.

문영숙 코리아 디아스포라 작가와 김월배 한국 안중근 기념관 연구위원이 펴낸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은 인물과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항일독립투쟁 장면들이다. 책은 임시정부 역사뿐 아니라 항일독립투사들의 활동과 의거를 사건 현장과 역사 기록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구성해 풀어낸다.

또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분 최재형과 이상설, 독립운동가들의 발이 되었던 이룡양행의 조지 소, 황족이지만 상하이로 망명하려 했던 의친왕 이강,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계획했던 임정 주석이자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아울러 일본군대를 탈출해 충칭 임정에 도착하기까지 죽음을 무릅쓴 장정을 한 장준하와 학도병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창립했던 김원봉, 임정의 잔 다르크로 불린 정정화, 한국광복군의 지청천과 이범석 등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쉰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형성, 이동, 귀환까지의 과정을 각 지역을 답사하며 살렸다.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임정 옛터를 돌아보며 임정 수립과정과 임시 요인들의 활동을 돌아본다. 이처럼 책에는 러시아 연해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현장 답사 기록이 담겨 있다.

저자 문영숙은 “우리 역사를 소재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썼다”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곳들을 만나고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셀렉션·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방큰돌고래

안도현 지음

1996년 출간 이후 22년 동안 106만부 이상이 판매된 ‘연어’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어른과 청소년 모두에게 순수 지향의 동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도현 시인이 이번에는 신작 ‘남방큰돌고래’를 펴냈다. 동화는 사람에게 의해 불법으로 포획되었다가 자유를 찾은 한 소년기 남방큰돌고래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 돌고래의 이름이 ‘체제’. 체제는 인간이 처놓은 그물에 포획되어 길들여져서 쇼돌고래로 전락했다가 특별한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제주바다로 야생 방사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사건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가져왔다.

작품은 시인 특유의 상상력을 토대로 현실에서 훨씬 더 확장된다. 고난을 겪고 훨씬 성숙해진 체제는 야생의 제주 바다에 적응하며 여러 사건을 겪는다. ‘나리’라는 암컷 돌고래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임종을 맞이한 할아버지 돌고래의 유언 ‘마음의 야생 지대’를 듣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감행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성장모험담이면서 한편으로 판타지에 해당한다. 은유와 잠언이 적절히 배치된 재미있는 동화로 다양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리얼리즘 시각으로 읽을 경우 환경 보호, 전쟁 반대, 평등, 페미니즘, 동물의 권리, 해양쓰레기 투기 반대 같은 의미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시대적이거나 구호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구라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지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Human & Books·1만2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지음

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은 이가 있었다. 장영희 교수의 딸로 서경대 영미어문 전공 교수이자 번역가, 칼럼니스트, 중·고교 영어 교과서 집필자 등을 했으며 에세이집 ‘내 생애 단 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한 장영희 교수다.

저자가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9년여간 작업했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100쇄 출간을 기념해 양장본으로 출시됐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권장도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CEO 필독서’ 등으로 선정된 이 책은 그림 작가 선정에서 제목, 디자인 콘셉트까지 저자의 손을 거쳐 완성된 책이다. 세 번에 걸친 암 투병 도중 월간지에 연재했던 57편의 원고를 다듬어 엮었다. 2001년 보스턴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 척추암이 호전돼 연재를 재개했을 때, 암이 간으로 전이돼 미국행을 포기했을 때 등 9년간의 시간을 담았고, 책의 제목은 김중삼의 시 ‘어부’ 중 한 구절인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를 변용했다.

병상에서의 견디기 힘든 아픔과 함께 썼으나 글은 결코 무겁거나 우울하지 않다. 적절한 유머와 유희, 긍정의 힘으로 풀어낸 글은 고통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바꿀 줄 아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며 독자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여한다.

올해는 이 책의 100쇄 출간뿐 아니라 저자의 10주기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인쇄된 책이 나온 5월 8일 병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저자의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운다.

〈샌터·1만3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